

‘주유소 3중고’ 광주·전남 지역 3년새 170여 곳 휴·폐업

친환경차 보급 확대·유가 폭등·업소간 출혈 경쟁

“정부·지자체 지원 통해 주유소업계 숨통 틔워줘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유가 폭등, 업소 간 출혈 경쟁까지 3중고(苦)에 주유소들이 사라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간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만 모두 177곳에 이른다.

같은 기간 신규 주유소(23곳)의 7.7배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2020년 68곳, 이듬해인 2021년 68곳이 각각 휴·폐업한 데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본격화된 올 상반기에도 광주 21곳, 전남 20곳 등 모두 41곳이 경영난에 폐업 또는 휴업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유지비가 쏠 켜지자, 수송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했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으로 일반 주유소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 저장시설 철거에서 용도 폐지, 토양오염도조사, 토양 정화까지 수 억원에 달하는 시설 폐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기 폐업을 이어가거나 방치하면서 토양 오염은 물론 화재나 폭발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2차 후유증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석유판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이나 폐업자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사업을 할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3중고로 소위 ‘좁비 주유소’도 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유소업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부지 만큼 각종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며 “석유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에너지 슈퍼스

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산업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성탄절 서예 퍼포먼스

21일 오후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에서 산타 복장을 차려입은 쌍산 김동욱 서예가와 독도 사랑 예술인 연합회 김지영 회장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해 넘기는 광주·전남 주요 사건...‘법조 비리에 의료사고까지’

‘법조 비리’ 전관 변호사, 기밀 누설 경찰관 내년 1~2월 속행

2명 숨진 척추병원 의료사고, 480억대 전세사기 수사도 계속

수의계약 비위·분양 사기·현직 경찰 사무장 병원운영 의혹도

올 한해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주요 사건 재판과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된다.

21일 법조계와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법관 청탁 비위를 저지르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 2명의 1심 재판은 내년 2월 2일 속행한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구속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2억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소된 이후 올해 들어서

는 1월(2차례), 3~5월, 8월과 12월 등 총 7번 공판이 열렸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은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재판 역시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 또는 경찰 간부에 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 알선에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 이후 올해 11월 24일까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보석 신청이 인용된 지난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역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의료 사고를 수사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6월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이 7시간여 만에 숨졌다. 또 올해 2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한 7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집도의·간호사 등 총 1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1월 평동산단 내 디케이㈜에서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산재 사고도 수사가 한창이다. 현장 안전 관리자 등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쳤다.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형사 입건 대상을 추리고 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갭(Gap) 투자’ 사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전세를 끼고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남성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 공모 또는 방조 정황이 있는 공인중개사 등도 추가 입건해 조사한다.

조선대학교 모 학과 내 학사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낸다. 전임교원 임용 절차에 부당 개입,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 선대 모 학과 교수를 입건했다. 임용 비위에 연루된 또다른 전임교원은 전적 대학에서 제자로 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송치된 바 있다.

이 밖에 광주시 관광협회의 위탁 사업비 부정 집행(업무상횡령 혐의 3명 입건),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비 유용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뇌물 비위와 관련 워선 개입 의혹을 살피고 있다.

군청 간부 공무원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특

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도중 대가성 뇌물이 김산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 추가 입건도 고려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지식정보센터)을 추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특정법상 사기)로 건설사·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도 입건된 상태다. 해당 지식정보센터 분양자 50여 명은 고소장을 통해 80억 대 피해를 주장했다. 고소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물 분석,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산 경감급 경찰관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경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 청구로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